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황 옥 경(Ok-Gyung Hwang)**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II. 연구 내용 및 방법	VI. 질문지조사
III. 선행연구	1. 계속교육활성화
IV.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2. 계속교육 참여 경험
V. 현행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3. 선호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1. 국립중앙도서관협회	VII. 결 론
2. 미국도서관협회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사서직 계속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시행의 2003년 ~ 2006년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고 미국도서관협회 및 미국연구도서관협회가 2005년도에 시행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교육, 정보검색, 전자저널 및 라이선스 등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하는 주제분야와 더불어 지적자유, 재난기획, 대학교수진과의 협력, 프리젠테이션 및 교수기법 등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된 교육과정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계속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대학도서관, 사서직, 전문직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desirable for the academic librarian under digital circumstanc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nd also undertook a questionnaire survey of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ed user instruction, information retrieval, electronic licensing etc. as programs needed most by the academic librarians. And also suggested intellectual freedom, disaster planning, cooperation with faculty, presentation and teaching skill as desirable to be included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Key Words: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cademic Librarian

* 이 논문은 200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hmirim@swu.ac.kr)

• 접수일: 2006년 5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6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일을 과거의 지식과 기술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과 미래의 지식정보사회는 부단한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를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평생교육, 재교육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는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계속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고양시키는 자기계발의 노력이며 이는 전문직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혁신의 기회이다.

특히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 내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개발과 이용, 라이선스 계약, 기관학술정보저장소(institutional repository), 오픈 액세스 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사서들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1983년부터 사서직 계속교육을 위한 공식 기관으로 인정받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공무원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사립대학 도서관이나 기업체 자료실 등 전문·특수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여전히 공무원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등의 계속교육 기관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의 계속교육은 이론에 중점을 둬으로써 실무진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회나 협회에서의 교육은 일회적인 강좌 실시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계속교육에 초점을 두어 국내외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서직 계속교육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시행되었거나 시행예정인 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외의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연구도서관협회의 홈페이지 내용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 현직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제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 112개교의 도서관에 재직 중인 관장, 관리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집된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통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5. 11. 1 ~ 12. 13까지 3주간이었다. 질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질문지 발송 10일 후, 미응답자에게 응답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와 더불어 질문지를 다시 한 번 발송하였다. 506명의 질문지조사 대상자로부터 393부의 질문지를 회수함으로써 7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38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를 사용하였다.

Ⅲ. 선행연구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아¹⁾는 서울 지역 20개 공공도서관 사서 84명과 25개 대학도서관 사서 9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선호하는 계속교육 주제 분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경영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반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서지 분야의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으로 원하는 교육 분야는 외국어와 정보·전산화 분야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실무자 교육 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다른 관공의 사서들에게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구 기관인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에게는 문헌정보학 이외의 주제 배경을 갖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방법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장단기 연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애경²⁾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 계속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서들이 계

1) 박정아, 사서의 계속교육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4.

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서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리고 자기계발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 행정직과 동일한 인사고과로 인해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계속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정³⁾은 전국 72개 대학도서관의 참고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들이 참고 사서들만을 위한 업무별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참고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참고 사서를 위한 일반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대규모 도서관에서 실시되도록 하되 업무별 교육은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사서교육원 등의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참고 사서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참고사서들에게 적합한 계속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혜란은 우리나라 사서들의 계속교육 실태 파악 및 요구 조건들을 분석하기 위해 29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계속교육에서 요구될 수 있는 주제와 해당 주제 요구에 대한 유형별 차이를 규명한 결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원과 탐색, 서지정보의 DBMS 적용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서직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수강자들의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서직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단체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현황 조사는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도서관 환경을 고려한다면 최신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외 연구로서 Morgan⁴⁾은 현재와 미래의 대학도서관 사서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술은 대학교 직원들과의 신뢰성, 교수 및 학습, 정보기술 관련 기술, 관리 기술이라고 밝혔다. Larsen⁵⁾은 덴마크 연구도서관 사서의 50-60%가 네트워크 기반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고 연구도서관의 도서 대출 중 62%가 '다운로드 대출'인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정보 처리, 교육, 서비스 평가, 편목, 분류, 정보검색, 참고봉사 및 이용자 교육 등의 전통적인 교육 이외에 커뮤니케

2) 박애경. 수도권 사립 대학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교육학과, 1995.

3) 박은정.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6.

4) Steve Morgan, "Developing academic library skills for the future," *Library Review*, Vol.45, No.5(1996), pp. 41-53.

5) Gitte Larsen. 2005.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rends and perspectives in a Nordic context. Paper for IFLA 2005 - SET & LTR Session 108, 16th August. <http://www.ifla.org/IV/ifla71/papers/143e-Larsen.pdf>. [cited 2005.10.15]

이선, 협상, 협동, 온라인 참고봉사, 지식과 경험의 공유, 마케팅, 브랜딩, 웹디자인, 전자서비스 이용 측정 및 평가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이 지속적인 전문직 개발 동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속교육을 위해 직원의 근무시간 중 최소한 10%는 계속교육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전체 예산 중 최소한 25-30%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대학및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for College & Research Libraries : ACRL)의 한 분과인 Science and Technology Section(STS)에 속하는 Continuing Education Committee(CEC)가 2003년도에 91명의 회원 사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수진과의 협력 관계 향상, 과학 분야의 정보활용 능력, 도서관 장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전자 자원의 영향, 주제별 참고자원, 프리젠테이션과 교수 기법, 전자 자원 수서 등의 순서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1명의 조사 대상자 중 80%가 여성이었고, 3분의 1이상은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이 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지만 2003년도의 이 조사 이후 CEC는 급변하고 있는 작업 환경을 절감하여 2003년의 조사에 이어 2004년에도 “최고 관심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이 조사는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과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Libraries Division 과 함께 3개 조직이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데이터 수집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및 교수에 있어서 교수진과의 협동 작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오픈 액세스 저널, 장서개발을 위한 이용 통계, 평가와 이용자 조사, 디지털 기관학술정보 저장소 개발, 국가과학도서관 구축의 노력, 연합 탐색, 질 높은 무료 온라인 데이터 발견, 과학 블로그, 리스트서브 등의 최신 정보 발견법, 인용 분석, 계량정보학, 인비저블 웹, 시맨틱 웹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의 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에 따라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내용도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IV.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하 IFLA)은 1997년도의 베이징대회에서 1998-2001을 겨냥한 계속교육 관련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⁶⁾

- ① 문헌정보학 교육자 및 실무자에 대한 기본 교육과 계속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촉진
- ② LIS 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자격증을 통해 LIS 인력의 전문가로서의 지위 유지
- ③ 전 세계적인 LIS 교육 프로그램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6) <http://www.ifla.org/VII/s43/index.htm>. [cited 2005. 11. 4].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2호)

- ④ LIS에 대한 다국어 용어집을 최신으로 유지함으로써 IFLA의 다문화 원칙 촉구
- ⑤ 개발도상국의 LIS 전문가와 교육자에게 전문적인 개발 기회 제공
- ⑥ 혁신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창의적인 교수방법, 교재에 대한 정보 배포
- ⑦ 새로운 지식, 기능, 경쟁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적인 개발 기회 조성

상기 목표를 보면 전문직으로서의 개발과 최신성 유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라 판단된다.

이후 2004-2005년도의 지속적인 전문직 개발 및 현장 학습을 위한 섹션 전략 기획으로 발표된 IFLA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전문가 및 도서관 전문가의 최신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장려, 홍보 및 지원
- ②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및 평생 학습과 관련된 활동, 논의, 출판으로의 초점 집중
- ③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전달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전 세계 실무자 및 연구자 집단 지원
- ④ 도서관 및 정보 현장의 모든 지위의 개인과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의 관리자, 연구자, 제공자 이외에 기관의 구성원들까지 장려

1998-2001년도의 교육목표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도서관 내 사서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FLA의 또 다른 분과인 전문직 개발 & 현장 학습과(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Workplace Learning Section: CPDWL)는 정보통신기술의 신개발과 신동향, 높아지는 이용자의 기대, 문헌정보 서비스 직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 증대, 정보 산업 분야에서의 정보 전문가로서의 경쟁 고조 등의 현상 속에서 기관들이 '학습 조직'이 되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전문직 개발과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기획하고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V. 현행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가장 대표적인 국내 사서교육 시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2006년도 사서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사서직 공무원의 핵심 역량 강화
-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 도서관 혁신을 촉진하는 사서교육훈련 실시

상기 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은 사서직 공무원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점추진사항 중에도 가치관 정립 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고취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 계속교육을 위한 공식 기관으로 인정받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는 기관이며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사서직 계속교육기관인 바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계속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미국도서관협회 및 미국연구도서관협회에서 개설되는 대학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분석하였다.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였거나 시행예정인 교육과정⁷⁾ 및 교육횟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교육과정과 교육횟수

		2003	2004	2005	2006
교육과정	전문	21	23	29	24
	기타	13	10	4	4
	총계	34	33	33	28
교육횟수	전문	23	29	32	27
	기타	14	10	4	4
	총계	37	39	36	31

급속한 도서관 환경변화와 더불어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육횟수 모두 지난 4년 동안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과정 중에는 도서관 환경 변화 및 사서들의 요구 변화에 따라 매년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과 폐지되는 과정도 있으며 매년 공통적으로 교육되는 과정도 있다. 4년 동안 공통으로 교육되는 과정

7) 국립중앙도서관. 2003년도 교육훈련 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3.
 국립중앙도서관. 2004년도 교육훈련 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4.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교육훈련 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인용 2006. 3. 5].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2호)

은 다음과 같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책과정 • 도서관경영전략과정 • 도서관행정실무과정 • 도서관문화행사과정 • 도서관이용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 • 자료보존 • 도서관 장서관리 • KDC 자료 분류 • KCR4판 및 통합MAR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보서비스 • 웹 사이트 구축 • 사서교사과정 • 문고 운영관리 등 |
|--|---|--|

웹 사이트 구축과정을 제외하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공통 교육과정은 달리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연도별로 신설 및 폐지된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폐지 및 신설 과정

연도	폐지과정	신설과정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경영전략 • 도서관서버관리 I • 도서관서버관리 II • 인포메이션아키텍처-웹사이트구축과정 •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 • 도서관장서개발과정 • 연속간행물관리과정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관리과정-초급 • 데이터베이스관리과정-중급 • 도서관서버관리과정 I • 도서관서버관리과정 II • 도서관홈페이지제작과정 • MARC 실무과정(KCR4판 및 KORMARC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II Light 과정 • KOLAS II 과정 • 도서관과 저작권과정 • 사서발전세미나과정 • 도서관PC운영과정 • 디지털기기활용과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과정(독서지도기초와 독서지도심화과정 분과) • 연속간행물관리과정 • 비도서자료관리과정 • 정보자원서비스과정 • 도서관이용자관리과정(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유지) • KOLAS II Light 과정 • 사서발전세미나과정 • KCR4판 및 KORMARC과정(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전문사서교육초급과정 • 주제전문사서교육중급과정 • 도서관커뮤니케이션과정 • 독서지도기초과정 • 독서지도심화과정 • 독서치료기초과정 • 독서치료심화과정 • 스피치 및 이용자교육과정 • 디지털정보자원관리과정 • 지식관리시스템설계과정 • 자원봉사자과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치 및 이용자교육과정 • 디지털도서관 운영과정 • DDC 자료분류과정 • 도서관과 저작권 • 도서관 PC관리과정 • 지식관리시스템설계과정 • 독서치료심화과정 • 주제전문사서교육중급과정 • KOLAS II • 사서교사(I, II 과정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기초-사이버 • 어린이자료실운영자 • KDC자료분류-사이버 • 주제전문사서심화 • 학교도서관운영

신설 교육과정은 현직 사서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저작권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2005년도에는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심화 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주제전문사서 과정과 자원봉사자과정이 개설되었다. 2006년도에는 독서지도기초과정과 KDC 자료분류과정에 대한 사이버교육과정이 무상으로 개설되었고 학교도서관운영과 어린이자료실운영 과정이 신설되었다.

자원봉사자과정의 개설은 앞서 IFLA 교육목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서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지속개발의 강조와 더불어 도서관내 사서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근로학생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연도별로 폐지된 교육과정을 보면 매년 공통으로 개설되는 과목이 아닌 경우 새롭게 개설된 후 1년 내지 2년 후에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후 1년 만에 폐지된 교육과정은 2003년도의 도서관서버관리과정 I과 II, 2004년도의 사서발전세미나과정과 KOLAS II Light과정, 2005년도의 지식관리시스템설계과정, 스피치 및 이용자교육과정, 독서지도 심화과정, 독서치료심화과정, 주제전문사서교육중급과정 등의 9개 과정이다. 신설 후 2년 만에 폐지된 교육과정은 2004년도의 KOLAS II과정, 도서관과 저작권과정, 도서관PC운영과정의 3개 과정이다. 1년 내지 2년 만에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현상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2006년 현재 개설 예정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가장 큰 특징은 독서지도기초와 KDC자료분류 2개 과정이 사이버 교육으로 개설된 점이다. 사이버 교육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5년부터 시작된 무상 교육 과정이 2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늘어난 점이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의 2006년도 개설 교육과정

분야	교육 과정 명	교육기간	교육횟수	비고
선택 전문 교육	도서관 정책 과정(A)	5일	1회	
	도서관 정책 과정(B)	5일	1회	
	도서관경영전략과정(A)	5일	1회	
	도서관경영전략과정(B)	5일	1회	
	도서관행정실무과정	5일	2회	
	도서관문화행사과정	5일	1회	
	도서관이용자관리(A)	5일	1회	
	도서관이용자관리(B)	5일	1회	
	도서관커뮤니케이션	5일	1회	

	독서지도	5일	1회	
	독서지도기초(사이버)	5일	1회	무상신설
	독서치료	5일	1회	
	어린이자료실운영자	5일	1회	신설
	자료보존	5일	1회	
	도서관장서관리	5일	1회	
	KDC 자료분류	5일	1회	
	KDC자료분류(사이버)	5일	1회	무상신설
	KCR4판&통합MARC	5일	1회	
	디지털정보자원관리	5일	1회	
	도서관정보서비스	5일	1회	
	웹사이트구축	5일	1회	
	디지털기활용	5일	2회	
	주제전문사서초급	5일	1회	
	주제전문사서심화	10일	2회	신설
	소개(24과정)	125일	27회	
기 타 교 육	사서교사과정	5일	1회	
	학교도서관운영	5일	1회	무상신설
	문고운영관리	3일	1회	무상
	자원봉사 활동	3일	1회	무상
	소개(4과정)	16일	4회	
	합계(28과정)	141일	31회	

2. 미국도서관협회(ALA)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⁸⁾는 모든 이에게 최상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핵심 활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 및 계속 학습이다. ALA는 도서관 직원과 사서, 이사진에게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 ALA는 11개 부서와 15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 공조를 통해 수많은 대회, 회의, 포럼, 워크샵, 세미나, 협회를 후원하고 있다. ALA가 시행하고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분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특히 ALA의 한 분과로서 대학도서관사서 및 정보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ACRL의 계속 교육은 크게 전국회의, 미드윈터 회의, 강습회, e-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제12차 전국회의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5>와 같은 주제 트랙을 따르고 있다.⁹⁾

8) <http://www.ala.org/ala/education/ce/continuingeducation.htm>. [cited 2005. 11. 4].

9) <http://www.ala.org/cetemplate.cfm?section=ceclearinghouse&template=/cfapps/contedu/searchprograms.cfm>. [cited 2005. 11. 4].

〈표 4〉 ALA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속의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읽고 쓰는 능력 - 디지털 격차 - 디지털도서관 - 다양성 - 경제적 장벽(비용) - 접근의 평등 ② 지적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 전문직 윤리 ③ 연구 및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 재난 기획 - 도서관 제본 - 보존기술 - 벤치마킹 - 연구방법 ④ 표준 및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전자라이선스 계약 ⑤ 지적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 전자라이선스 계약 ⑥ 정보기술 & 도서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 정기간행물 - 웹진 - 콘텐츠/지식 관리 - 인터넷 관리 - 도서관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선정 - 포털 - RFID - 웹 디자인 - 무선 기술 및 P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 수상자 - 문화 프로그램 - 읽고 쓰는 능력 ⑦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인식 - 도서관서비스 마케팅 - 도서관 커뮤니케이팅 가치 - 도서관 홍보 ⑧ 전지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 - 세계무역쟁점 및 도서관 ⑨ 이용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교육 - 장서 서비스 - 도서관상호대차 - 인터넷 서비스 - 독자 조언 - 참고봉사 ⑩ 장서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보 및 지역사 - 정부문서 - 연속간행물 - 특수 장서 및 희귀도서 ⑪ 도서관 연구, 쟁점, 동향 ⑫ 행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공간기획 - 시설장비관리 - 재정 및 기금모집 - 도서관 경비 및 예산 - 정책개발 - 전략기획 - 이사회업무 - 재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장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 - 편목 및 분류 - 장서개발 - 메타데이터 - 아웃소싱과 계약 관리 - 보존 ⑭ 도서관 교육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 계속교육 ⑮ 직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행동 - 업무 개발 - 인적자원관리 - 채용 - 직원개발 ⑯ 정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술 - 기금 ⑰ 정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 아웃소싱과 민영화 ⑱ 읽기, 쓰기와 독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 수상자 - 문화 프로그램 - 읽고 쓰는 능력 - 도서관 자료 보존 - 디지털화 - 재난 기획 - 도서관 제본 - 보존 기술
--	--	---

〈표 5〉 ACRL 제12차 전국회의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의 주제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문화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인력 자본 - 모집과 유치 - 차세대 관리자와 지도자 - 도서관 인력 - 학생 인력 - 직원 개발과 연수 장소로서의 도서관 -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개조 - 문화 공간, 학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 법률 및 정부 정책의 영향 - 도서관은 무엇이 될 것인가? • 전자 및 디지털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과 보존 - 전자 자원 관리 - 연합 탐색 - 이용성 연구 - 디지털 객체 관리 시스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기대 충족 - 옛 공간을 위한 새로운 이용자 - 조직으로서의 도서관 - 계층에 대한 대안 - 도서관 내 역할 수렴 - 조직 설계 및 개발 - 개발 및 자금모집 • 정치적 현실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캠퍼스, 국가의 현실 - 외부 자금: 양도 작성 및 예산 지지 - 정부 정보와 출판물 - 컨소시엄 형성과 협상 진행 - 사생활 문제 - 정부 및 법률 정책 -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도서관과 로비활동 • 수렴과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 박물관과 도서관 - 컴퓨터 센터와 도서관 - 벤더와 도서관 - Healthcare providers and libraries - 비영리와 도서관 - 정부 및 지역 에이전시와 도서관 - 국제 에이전시와 도서관 - 신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관계자들 • 새롭게 떠오르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의 합병과 "국제화" - 국제적 합의(예: WIPO) - 벤더 패키지와 번들링 - 출판사로서의 도서관 - 오픈 액세스 - 출판의 새로운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학술정보저장소 - 시각 자료의 디지털화 -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서 - 메타데이터 이용 - 콘텐츠 관리 시스템 - 캠퍼스 포털과 도서관 자원 - 원격 이용자 대 자관내 이용자 - 온라인 목록 및 여타 자원 공유 - 차세대 통합 도서관 관리 시스템 • 전통의 재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목, 표준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용 - 기술 서비스의 역할 - 공중 서비스의 역할 - 재설계 서비스와 장서 - 자원 공유 - 평가 - 도서관 정책, 가치, 전문직 윤리 • 교수 및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온라인 학습 - 원격 교육 - 웹기반 교육 - 강좌 관리 시스템 - 평가 - 요구 평가 - 학습의 결과 - 도서관 안팎의 학습 공간 - 정보활용능력 이론과 실제 - 교육 설계 - 다양한 이용자층을 위한 교육 - K-12 원조 및 협동 - 도서관을 위한 계속 교육 -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험
--	---

환경과 문화의 변화 중 장소로서의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개조, 문화 공간과 학습 공간 등은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도서관 개보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컨소시엄 형성 및 협상 진행, 기관학술정보저장소, 출판사로서의 도서관, 오픈 액세스, 출판의 양상과 같은 주제들은 빠르게 변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내에서 대학도서관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일 것이다.

3.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

연구도서관협회(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¹⁰⁾의 Office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Services(이하 OLMS)는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효

10) <http://www.arl.org/arl/programs.html>. [cited 2005. 11. 4].

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정보시대에 이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1970년에 창설되었다. OLMS은 대학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이 자관의 자원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통해 고등교육의 교육연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ARL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계속교육 형태는 크게 공공 워크샵, 맞춤형 워크샵, 원격 학습 강좌, 다양성 추구 프로그램의 4가지이다. 이 중 2005년도의 OLMS 상설 공공 워크샵 일정표¹¹⁾에 따른 전체 시행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2005년도 OLMS 상설 공공 워크샵 일정표에 따른 전체 시행 내용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형태	교육기간
1	A Webcast Introduction to LibQUAL+	웹캐스트	1.5시간
2	Motivation, Performance & Commitment	가상	14일간*2
3	Professional Writing for Librarians	가상	30일간*3
4	ARL/ESRI GIS Webcast: Libraries and Digital Mapping in the 21st Century	웹캐스트	1.5시간
5	Measuring Library Service Quality	가상	40일간*3
6	Teaching · Learning&Research: Libraries and Their Role in the Academic Institution	웹캐스트	1.5시간
7	Library Fund Development	가상	14일간
8	Licensing Review and Negotiation	가상	30일간*3
9	Coaching for Performance	가상	24일간
11	Accessible Web Design	가상	18일간*2
12	Power Dynamics & Influencing Skills	가상	14일간
15	Designing for the Web	가상	24일간*2
17	Library Conflict Management	가상	21일간
18	Library Management Skills II	대면	4일간
19	Future of Government Documents	가상	2일간
21	Library Fund Development	가상	14일간
25	Library Management Skills Institute I	대면	3일간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대면 교육과 웹캐스트, 그리고 가상 교육의 세 가지로 제공된다. 대면 교육인 경우에는 3-4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상 교육인 경우에는 보름에서 3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이 시행되고 있다. 웹캐스트인 경우에는 대개 한 시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의 대부분이 웹캐스트 형태나 가상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도서관 서비스 평가, 사서를 위한 전문적인 글쓰기 등의 주제는 30일에서 40일의 기간을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어 이들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http://www.arl.org/olms/olms_cal2005.html. [cited 2005. 11. 4].

VI. 질문지 조사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 112개교의 도서관에 재직 중인 관장, 관리자, 실무자들 중 506명을 계통표집법으로 선정하여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 11. 1 ~ 12. 13까지 3주간의 조사기간 동안 우편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경과 506명 중 393명으로부터 질문지를 회수함으로써 7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38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계속교육 활성화

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계속교육의 활성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3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 6개를 우선순위로 나열하도록 하였고, 1순위부터 6순위까지 1점씩의 가중치 차등을 두어 1순위가 6점, 6순위가 1점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종합점수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 높은 교육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심 높은 교육 주제 선정을 1순위로 선정한 응답자는 전체 382명 중 137명(35.5%)으로서 1순위 선정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주제 선정에 앞서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표 7>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

방안	점수
관심 높은 교육 주제 선정	1,397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1,236
충분한 지원체계의 확립	1,177
교육의 지속성	1,061
교육의 질 향상	836
교육수준의 다양화	664
교육수료 후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	398
정규교육의 확대	362
전담기구의 설치	341
온라인 교육의 확대	297
공신력 있는 수료증 발급	223
비정규교육의 확대	69
기타	12
합계	7,989

2. 계속교육 참여 경험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서는 전체 387명의 응답자중 237명으로 61.4%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서는 149명으로 38.6%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장혜란¹²⁾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3년에 1회 정도의 계속교육 참여율을 보인 데 비하면 상당 수준 계속교육 참여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계속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구분	빈도	%
있다	237	61.4
없다	149	38.6
합계	386	100.0

지난 1년간 사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37명의 사서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저작권법을 포함한 도서관 관련법(74건 9.8%), 도서관 정책(70건 9.3%), 도서관 기획 및 전략(51건 6.7%), 전자저널, 라이선스(50건 6.6%), 이용자교육(48건 6.3%), 도서관평가(45건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정아(1994)의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서지분야의 교육을 원하며 외국어와 정보, 전산화 분야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법이나 도서관 경영 관련 교육에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한편 외국어 관련 교육에의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 변화와 더불어 사서들에 의해 선호되는 교육 주제 분야도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9> 지난 1년간의 참여 프로그램 주제

항목	응답빈도	응답%	응답자%
도서관 관련법(저작권 등)	74	9.8	31.5
도서관정책	70	9.3	29.8
도서관 기획 및 전략	51	6.7	21.7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	50	6.6	21.3
이용자교육	48	6.3	20.4
도서관 평가(통계 등)	45	6.0	19.1
정보검색	44	5.8	18.7
도서관 마케팅	39	5.2	16.6

12) 장혜란,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1997), pp.7-28.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2호)

뉴미디어(전자자료 등)	35	4.6	14.9
IT기술및응용프로그램활용능력	32	4.2	13.6
기타	32	4.2	13.6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32	4.2	13.6
편목(KORMARC)	28	3.7	11.9
외국어	24	3.2	10.2
분류(KDC, DDC)	23	3.0	9.8
일반교양	20	2.6	8.5
장서개발과정	18	2.4	7.7
커뮤니케이션	17	2.2	7.2
대학 리포지토리	14	1.9	6.0
주제별 정보원 구축	13	1.7	5.5
자료보존	12	1.6	5.1
홈페이지등 웹사이트구축	9	1.2	3.8
정서평가	9	1.2	3.8
사서직 이론,역사,원리,윤리	8	1.1	3.4
색인 및 초록작성법	5	0.7	2.1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	4	0.5	1.7
합계	756	100.0	321.7

3. 선호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가장 선호하는 계속교육 주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각 주제별로 매우 필요부터 전혀 불필요까지 5점 척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4.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정보검색(4.366점),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4.352점)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은 디지털 환경과 더불어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분야로서 현직 사서들은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전에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9>에서 지난 1년간 참여했던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 중 도서관 관련법(저작권법 등)과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 이용자교육, 정보검색 과정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서 <표 3>의 국립중앙도서관의 2006년도 개설 교육과정을 보면 전자저널, 라이선스 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던 도서관과 저작권 과정이 폐지되어 있다. 라이선스 관련 교육 주제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비해 대학도서관에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제이나 모든 관중의 사서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낮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기관학술정보저장소,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한 주제들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대두된 관심 주제 분야로서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및 기관학술정보저장소는 타관중에 비해 대학도서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들 주제는 앞서 ALA 및 ARL의

교육 주제로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직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교육주제이다.

한편 일반교양(3,286점), 사서직 이론, 역사, 원리, 윤리(3,016점), 문헌정보학 기초이론(2,927점) 등은 모두 평균점수가 3.5점미만으로 다소 불필요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9>에서 이들 주제와 관련한 계속교육에의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은 기초적인 이론보다는 전문적인 이론 혹은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선호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주제	매우필요		다소필요		보통		다소불필요		전혀불필요		총합		평균 점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수	
이용자교육	205	54.1	140	36.9	30	7.9	3	0.8	1	0.3	379	1,682	4,438
정보검색	178	47.2	164	43.5	31	8.2	3	0.8	1	0.3	377	1,646	4,366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	174	46.0	167	44.2	33	8.7	4	1.1	0	0.0	378	1,645	4,352
도서관 기획및전략(경영,관리,인사)	147	38.8	172	45.4	51	13.5	8	2.1	1	0.3	375	1,593	4,245
도서관 마케팅	133	35.0	190	50.0	52	13.7	4	1.1	1	0.3	373	1,590	4,209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146	38.9	180	48.0	45	12.0	3	0.8	1	0.3	379	1,592	4,203
주제별정보원 구축	133	35.7	190	50.9	46	12.3	3	0.8	1	0.3	380	1,570	4,184
도서관 관련법(저작권 등)	101	26.8	199	52.8	72	19.1	5	1.3	0	0.0	377	1,527	4,050
뉴미디어(전자자료 등)	92	24.3	215	56.9	65	17.2	5	1.3	1	0.3	378	1,526	4,037
도서관 평가(통계 등)	90	23.7	207	54.5	78	20.5	5	1.3	0	0.0	377	1,522	4,032
도서관 정책	105	27.9	191	50.7	70	18.6	10	2.7	1	0.3	380	1,520	4,005
장서개발과정	98	26.1	188	50.1	80	21.3	7	1.9	2	0.5	375	1,498	3,995
IT기술및응용프로그램활용능력	88	23.5	180	48.0	97	25.9	9	2.4	1	0.3	375	1,470	3,920
기관학술정보저장소(dCollection)	69	18.3	198	52.4	103	27.2	8	2.1	0	0.0	375	1,462	3,883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구축	80	21.2	179	47.4	104	27.5	14	3.7	1	0.3	378	1,457	3,868
편목(KORMARC)	97	25.9	159	42.4	101	26.9	14	3.7	4	1.1	377	1,456	3,857
장서평가	76	20.2	184	48.8	104	27.6	13	3.4	0	0.0	378	1,454	3,854
자료보존	82	21.9	161	42.9	118	31.5	14	3.7	0	0.0	375	1,436	3,829
외국어	94	25.0	152	40.4	103	27.4	21	5.6	6	1.6	376	1,435	3,816
분류(KDC, DDC)	88	23.6	156	41.8	106	28.4	18	4.8	5	1.3	373	1,423	3,815
커뮤니케이션	70	18.7	174	46.5	109	29.1	17	4.5	4	1.1	374	1,411	3,773
상담(기초)	52	13.9	151	40.5	142	38.1	25	6.7	3	0.8	373	1,343	3,601
색인 및 초록 작성법	44	11.8	152	40.9	136	36.6	35	9.4	5	1.3	372	1,311	3,524
일반교양	27	7.2	121	32.4	168	44.9	48	12.8	10	2.7	374	1,229	3,286
사서직이론, 역사, 원리, 윤리	24	6.5	81	21.8	150	40.4	76	20.5	40	10.8	124	1,086	3,016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	18	4.8	82	22.0	154	41.4	78	21.0	40	10.8	371	1,076	2,927
기타	3	2.4	26	21.0	74	59.7	12	9.7	9	7.3	372	374	2,892

Ⅶ. 결 론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주제의 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가 요구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고 현장 사서에 대한 질문지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내 계속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그리고 국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연구도서관협회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는 국내 사립대학교도서관협회의 소속 회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주제로서 질문지조사 결과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득한 주제만을 선호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 교육
- ② 정보검색
- ③ 전자저널 및 라이선스
- ④ 도서관 기획 및 전략
- ⑤ 도서관 마케팅
- ⑥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 ⑦ 주제별정보원 구축
- ⑧ 도서관 관련법(저작권 등)
- ⑨ 뉴미디어(전자자료 등)
- ⑩ 도서관 평가(통계 등)
- ⑪ 도서관 정책

한편 일반교양이나 사서직 이론, 역사 원리, 윤리에 대한 교육, 혹은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교육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실무와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 시행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인 지적자유(ALA), 재난기획(ALA), 대학교수진과의 협력(ACRL), 프리젠테이션 및 교수기법(ACRL) 등 아직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 환경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현행 사서직 계속교육기관 혹은 앞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별도의 전담 교육기관이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